

---

# 2021년 제7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2. 12. ~ 2. 1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12.	시청률	0.027

### 【총 평】

북한의 설문화에 대한 토크배틀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흥미로웠다. 특히, 토크배틀에서 승리한 출연자에게 북한 음식을 시식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첫 번째 토크 배틀은 “설에 꼭! 해야 할 일”로 승리하면 북한의 최고급 대표 음식인 ‘어복쟁반’ 요리를 시식할 수 기회가 주어지고, 두 번째 설 토크 배틀은 북한 청년들이 즐겨 먹는 ‘인조고기밥’과 ‘두부밥’을 상품으로 “씻~비밀, 북한 명절 알차게 즐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복쟁반 같은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음식이지만, 인조고기나 두부밥은 북한주민에게 고향의 맛과 같은 음식임을 소개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설날 특집으로 북한의 설 명절의 풍습과 설 명절에 먹는 음식 등을 출연자들의 토크 배틀 형식으로 진행했다. 북한의 설 음식과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여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북한에서는 설에 음식과 술을 가지고 이웃들을 찾아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미풍양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이 밖에 어복쟁반의 재료이기도 한 모든 소는 국가 소유여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어복쟁반은 늦쟁반에 갖가지 소고기 편육과 채소를 넣고 육수를 부어먹는 평안도 향토음식이다.

북한에서는 짧은 연휴로 인해 귀성 대신 성묘를 가는데 성묘 갈 때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린 낙지(우리의 오징어)를 양말에 넣는데,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 칭하고 독사가 마른 오징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뱀을 쫓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성묘문화는 우리나라와 같으나 성묘를 가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스피커를 가지고 가는 풍경이 다른 차이였다. 북한 사람들의 흥 문화가 조상과 함께 즐기는 풍습이 느껴졌고, 우리나라의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예를 갖추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 밖에 북한의 세뱃돈 문화와 세뱃돈 받기 전략, 천차만별인 세뱃돈 액수와 어려도 어른이 주신 술을 마셔야 하는 문화, 결국 고주망태 되어 세뱃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고, 신년운세에 더 의지하는 북한 세시풍속,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단속한 역술이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북한에서는 살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역술인에게 점을 보면서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북한당국은 반국가적 미신행위로 역술인과 점을 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 북한의 현실적 실상을 전해주었다. 또, 카드게임을 하다가 정전이 되면 속임수를 쓰기 위해 손이 바빠지는 모습, 북한의 VIP들이 ‘264 해변’에서 춤추고 노는 이야기, 한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백종원 레시피 열풍이 북한에도 상륙 중임을 소개했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2. 12.	시청률	0.145

### 【총 평】

‘춤꾼과 소리꾼, 너는 내 운명’은 춤꾼과 소리꾼으로 장르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뤄가는 예술인 팝핀현준과 박애리 부부를 초대해 소통과 치유를 비롯한 화목한 가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소중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팝핀현준 씨가 성장기 어려움을 춤으로 극복한 인생드라마와 박애리 씨가 한때 소리가 안나오는 실의를 딛고 국립창극단 단원 오디션에 합격한 스토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금의 성공 뒤에는 성장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부의 진솔한 스토리가 ‘고진감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했으며, ‘춤꾼’과 ‘소리꾼’의 협력을 직접 보여주며 화합과 조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구성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팝핀댄스 1세대 댄서이자 공연예술가로 스트리트 댄스를 대중화시켰으며 공연예술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팝핀현준,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무대와 경계를 넘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전통 국악의 대중화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국악인 박애리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부부가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즉 동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무대의 조율에 있어서는 같은 분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소리와 춤, 전통과 현대로 구분되다 보니 서로 배워가며 이해를 하고 존중과 수용의 폭이 넓어졌다. 박애리 씨는 결혼 후 달라진 점으로 스스로 가둔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되었다. 국악인이지만 국악만으로서만 대중에게 보여주기 보다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틀을 깨는 계기가 남편인 팝핀현준에 의해 이뤄졌다.

팝핀현준의 자서전 ‘One & Only’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프롤로그에서 소개했는데 이어질 토크를 기대하게 할 만한 내용이었다. 추구하고 있는 예술세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이사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동력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잘 섞어서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 많았다. 팝핀현준 씨가 ‘거리생활’을 겪으며, 이주노 씨를 만나 빛을 발하게 된 이야기가 몰입도를 높였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과 노숙 생활을 하면서 영양실조까지 걸렸던 상황, 오로지 춤에 대한 열정이 ‘좋은 인연’으로 연결돼 현재의 자신을 만든 과정을 소개했다. 박애리 씨도 한참 꿈을 키우고 있는 중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 극복 이야기가 소개돼, 역시나 비슷한 결의 메시지가 연결돼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을 향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곱씹어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 연령층에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점이 인상적이다. “새해 건강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소서!” 새해 인사를 판소리로 전달해 설날 기획의도를 살렸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2. 14.	시청률	0.013

### 【총 평】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 사실은?’을 통해 백신 도입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모저모를 분석했다. 이 밖에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소개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도입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차후 백신 접종 계획까지 충분하게 언급했으며,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에 충분했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언급한 뒤 국민취업제도를 강조해 설득력이 높았다. 지역균형뉴딜정책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액화수소사업과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백신 개발 기간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1년 안에 개발 완료되다보니 검증 과정의 문제와 백신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백신 안정성과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민 세종충남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써 정부의 재정을 통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을 알려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의 고용시장 감소는 1998년 외환위기 때만큼 위기로 다가왔고,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50%에도 못 미친다는 고용노동부 2020년 통계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고용안정망 확충과 구축에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2021년은 ‘지역 균형 뉴딜’ 원년이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지역 균형 뉴딜’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력과 전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린 정책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 17개 시도가 동참중인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우선 강원도와 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선도에 도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액화수소사업은 액화 수소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이해를 도왔고, 규제 자유 특구의 필요성도 꽤 설득력이 있었다.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켰고 이 사업에 대한 차후 계획도 상세히 설명하여 기대감을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14.	시청률	0.132

### 【총 평】

“작은 시골빵집에서 큰 꿈이 자랍니다”는 귀촌 2년차 30대 중반 여성이 고향 영월로 돌아와 지방의 특색을 브랜드화한 빵과 차를 만들고 폐가를 활용해 관광용 숙소를 만드는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와 성공적으로 정착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명절 ‘고향’과 ‘귀향’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인공의 성공 배경에 행정당국의 폐광지원사업이 주효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정책정보를 제공했고, “청년들이 귀향해서 사업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주인공의 메시지를 통해 귀향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다가왔다.

### 【구성 및 내용】

‘작은 시골 빵집에서 큰 꿈이 자랍니다’는 강원도 영월에서 시골빵집을 운영하는 귀촌 2년차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5일장의 빵집과 특별한 빵의 소개, 고향이라는 의미, 가족의 사업, 새로운 사업 등을 다루었다. 매월 4, 9일에는 영월 5일장이 열리는데, 장날에만 문을 여는 특별한 빵집은 귀촌 2년차의 청년사업가인 주인공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강원도 영월에 폐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오래된 공간과 장소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었다.

**주인공과 가족들은 생업을 열심히 하지만 단순히 ‘돈을 쫓는 삶이 아님’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다.** 빵집에서 시작해서 숙박업까지 계속 가능성을 찾아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주인공의 적극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생각이 쇠락한 마을 영월이 주는 이미지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또한, 주인공이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었다.

시골빵집, 영월5일장, 폐가 활용 등 향토색 짙은 소재가 소구력을 높였고 낡은 옛집의 따뜻함과 세월의 흔적, 추억 등을 상품화하는 전략이 돋보였다. 곤드레를 분말화해서 한반도지형으로 만든 빵, 영월 붉은 수수로 만든 빵 등 모두 영월에서 자고나란 특산물과 한반도지형으로 유명한 선암마을의 지형을 접목했다. 이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선암마을, 한반도지형을 방문하면 꼭 들리게 되는 명소로 등극했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만으로도 지쳐버렸는데, 영월에서는 마음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 여유도 생겼다. 영월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어머니 덕분에 귀촌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인공과 귀향한 약사 막내동생, 새로운 요리 개발로 사업화를 시도하는 둘째동생 등 세자매와 카페를 운영하는 어머니와의 단란한 협업관계도 ‘가족의 힘’을 일깨우는 보기 드문 요소였다. 부모와 두 여동생이 보내는 지지와 지원을 통해 가족의 가치는 무엇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2. 16.	시청률	0.024

### 【총 평】

‘세계최고 혁신국가 선정,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위상’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에 한국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코로나 극복과제를 제시한 기획이 탁월했다. 한국의 방역평가를 놓고 국내 일부에서 논란을 빚는 가운데 해외 유력 언론의 평가지수 발표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 1위를 비롯해 세계 혁신국가 1위,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디지털 국가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 밖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등 ICT와 콘텐츠 등 수출 증가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분석해 코로나 위기에 시달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외 소식을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백신 접종 일정을 중심으로 전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국가별 혁신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내용을 소개하고 부문별로 나눠서 분석한 것은 시의적으로 의미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희망적이고 또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해당 지수는 제조업과 관련된 7개 분야에 가중치를 두고 지수를 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90점을 넘어서었다.

우리나라가 국가 혁신지수 1위를 차지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 주제를 맞춰서 설명한 것은 적절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한 국가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다. ITC와 콘텐츠 관련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분야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가 선정된 데에는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K방역의 영향력도 작지 않음을 강조하며, 국민 연대와 희생의 성과로 앞으로도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울러 영국 발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코로나 백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백신접종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왜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접종에서 제외됐는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브리핑타임은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소개했는데, 서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며 서울시의 경우 32만호를 공급한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2. 17.	시청률	0.138

### 【총 평】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를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한 점이 눈에 띄었고, 첫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대도시 주택공급 후속 방안 등 수용자 니즈를 살린 아이템을 깊이 있게 보도한 기획이 돋보였다.

코로나 집중보도에서 신규 확진자 다시 600명 대, 공중보건의 조기 투입, AZ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및 백신접종계획 등 관련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며, AZ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풀어서 전달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백신접종이 이뤄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저녁시간대 KTV대표 종합뉴스답게 잘 정리된 뉴스로 다양한 정보제공, 정책알림이 역할로 수용자 만족도를 높여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의 조기 투입 결정과 그 배경, AZ 백신 국가출하승인 결정 등 정부 대응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마련하고 협력 이익공유제 활성화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2025년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계획, 내용, 제도적 취지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낸 구성이 뛰어났다.

정부의 대도시 83만 가구 주택공급 발표이후에도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까지 사업 후보지 발표'와 '8.4대책 신규부지 인허가 속도'를 통해 집값 안정화 소식을 전했다. 2분기까지 25만 가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우선 공급권에 관한 계획을 밝혀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밖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 규칙과 국제·보건·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설 직후 정부 양곡 추가 공급, 글로벌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수출회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2021년 병역판정검사 변경 사항 등 사회 전반의 다채로운 소식을 전했다.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 데이터정책 추진 방향 안건 심의 의결에 맞춰 보도하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 '데이터경제 선도국가로'를 해설 형식으로 다룬 구성이 심층화, 입체화로 의미를 더 살렸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업무보고는 국민관심사인 수출전망과 뉴딜 추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당면현안 중심으로 보도해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S&NEWS'는 코앞의 수소경제, 영상으로 응급처치 지도, 누구나 확인 가능한 #1365 기부포털 등이 다뤄져 흡인력을 이끌었다. '수소법 제정'은 달라질 미래의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어 의미 있었고, '119 영상의료지도' 소식은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20. 2. 18.	시청률	0.003

### 【총 평】

코로나19 방역에 개인안심번호 도입 관련 개인정보위원회 브리핑, 신규 621명..."외국인 다수 사업장 집중 점검", 백신 접종센터 이달 5곳 설치...화이자 접종 준비, 2025년 신차 절반이상 친환경차...탄소중립 가속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과 방역, 그리고 백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안심번호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브리핑은 코로나19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로 피로감이 가중된 시점에서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개인안심번호 도입 관련 개인정보위원회 브리핑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되는 수기명부 기재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대책으로 개인안심번호 발급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한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시 까지 같은 번호로 계속 쓸 수 있고 숫자 4개와 한글 2개로 구성되었다. 휴대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허위로 기재하여 정확한 역학단계 조사에 혼란을 주었던 것을 바로잡는 소식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보도했는데 신규 발생 현황과 주요 감염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짧지만 정리가 잘 되었다. 특히 아산과 남양주의 집단감염에 초점을 맞추어 전했는데 이 곳의 공통적인 작업환경을 지적하는 대목이 좋았고 마지막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에 관한 멘트를 덧붙인 점도 경각심 유지 차원에서 좋았다.

백신 접종 관련 준비점검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접종센터 설치 계획과 화이자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간추려서 전달했다. 또,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맞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특히, 자막으로 단계별 계획이 잘 정리되어 이해를 도왔고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신빙성을 높였다. 접종센터에 관한 보도에서 영상으로 컴퓨터와 냉장고, 간이침대 등 센터 내에 비치된 물품들을 공개해 접종센터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도 풀어주었고 잘 준비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또 식약처 전문가단에 의한 백신 검증 절차도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친환경차 대중화 계획 보도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누어 각각의 기본적인 인프라 설치 상황을 정리했다. 2025년까지의 계획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충전기 설치와 차량 가격 인하, 세제 혜택 등 다각도의 지원 계획이 잘 다루어져 좋았다. 또, 기술혁신 사항도 정리해서 정부의 친환경차 대중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 데 일조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은 기초 설명에 이어 기자들의 비대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명했다.